"태권브이랜드 사업 추진해야"

이해연 의원, 무주군의회 제273회 임시회 1차 본회의서 5분 발언

이해연 의원

무주군의회 이해연의원이 26일 제273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태권브이랜드사업 사업의 필요성에 대하여 5분 발언을 했다.

먼저 이해연 의원은 "태권브이랜드 사업이 당초의 의도와 다르게 확대 보도되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운을 뗐다.

태권브이랜드사업은 "무주를 태권도의 성지로 널리 알리고, 태권도와 관광이 융합된 태권도관광산업의 발전을 위해 기획되었다."며 "의회에서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의결 보류, 예산의 삭감·조정 등 1년 이상 고민하고 심사숙고하여 의결한 사업이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기존에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었던 향로산 자연휴양림을 되살리고 내도리 생태테마파크와 연계하는 등 향로산을 복합 테마단지로 개발하여 무주군 관광산업의 전체적인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고 전망했다."며 당초 사업을 의결한 이유에 대해 상세히 언급했다.

그러면서 "당초의 사업의도에도 불구하고 사업 진행 과정에서 행정 내부 절차이행과 대외적인 여론수렴 및 공론화 과정이 거의 없었다."며 아쉬움을 나타냈다.

아울러 이 의원은 "태권도는 전국 각 지자체마다 도장이 없는 곳이 없을 정도"라며 이러한 태권도에 대한 수요를 태권브이랜드 조성사업과 연계한다면 사업의 성공 가능성이 크다고 보았다.

이 의원은 집행부에 추후 사업추진 시 △군민 공감대 형성 △캐릭터 스토리의 무주화 △사업의 혜택이 군민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모색 △투명하고 공정한 사업 추진 등 다섯 가지 사항을 이행해줄 것을 요구했다.

끝으로 "군민 분열이 일어나지 않도록 다양한 계층이 참여하여 무주의 관광 및 경제에 보탬이 되도록 추진하길 당부한다."며 5분 발언을 마쳤다.

/무주=전문선 기자

"맛좋고 질 좋은 장수 사과 맛보세요"

장영수 장수군수, 'WITH 米(미)페스티벌' 서 판촉행사 진행

장영수 장수군수가 맛좋은 장수 사과를 알리기 위해 직접 나섰다.

장영수 군수는 26일 서울시청 광장에서 열린 'WITH 米(미)페스티벌'에 참석해 장수 사과 판매 부스에서 판촉행사를 진행했다.

장 군수는 이날 판촉행사에서 시식행사와 장수 사과, 사과즙 등 판매에 직접 나서 "이른 추석과 가을장마, 태풍의 영향으로 수확이 지연돼 농가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품질 좋고 맛 좋은 장수 사과를 이번 기회를 통해 저렴한 가격으로 마음껏 맛보고 농가도 돕는데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같은 날 장 군수는 장수 사과 1000박스를 구입하고 전국 자치단체에 장수사과팔아주기 동참 공문을 보내 사과 농가를 돕는데 적극적으로 협조한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인 수원시도 방문해 감사 인사를 전했다.

장 군수는 전라북도 동부권 협의회장과 섬진강 유역 11개 지자체 회장을 겸하고 있어 전국 시장군수협의회장 염태영 수원시장, 더불어민주당 기초자치단체장협의회 황명선 논산시장, 전북시장군수 협의회장 황숙주 순창군수 등 전국 시장·군수를 통해 사과 판매 협조를 요청해 장수사과 농가를 도왔다.

장영수 군수는 "장수사과와 농민을 돕는데 많은 관심과 협조를 보내준 전국 지자체와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장수 사과의 명성을 앞으로도 계속 이어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다른 타 시·군의 어려움이 발생했을 때 장수군도 적극적으로 나서 돕고 협조하겠다"고 덧붙였다.

국내외 시장에서 명품으로 통하는 장수 사과는 맛은 물론 색깔과 식감이 뛰어나 소비자들에게 인기를 독차지하고 있지만, 가을장마와 연이은 태풍의 영향으로 사과 착색이 늦어진데다 평년보다 이른 추석으로 인해 판매 적기를 놓쳐 가격이 하락하고 말았다. 특히 우리나라의 대표명절 추석 사과로 자리 잡은 홍로는 직격탄을 맞았다.

이에 장수군에서는 사과농가의 어려움을 함께 하고자 직거래장터 및 박람회 등에 직접 참가하여 '장수사과 팔아주기 운동'을 적극 진행하고 있다.

한편, 27일에 자매 결연지인 인천 소래포구 축제 현장에서 계획돼 있던 장수 사과 판매 및 소비촉진을 위한 무료시식 행사는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취소됐다. /장수=고판호 기자

진안군, '진안사과 팔아주기 운동' 대대적 전개

진안군이 이른 추석 등으로 진안에서 생산된 사과(홍로)의 판매가 부진하여 사과재배 농가의 어려움이 커짐에 따라 '진안사과 팔아주기 운동'을 대대적으로 진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진안군 홍로 생산량은 1,200톤으로 이 중 재고량은 300톤에 달한다. 진안군은 재고량 판매를 위해 실과소 및 읍면 직원들은 물론 11개 유관기관·단체와 연계하여 사과 1인 1상자 팔아주기 운동에 들어갔다.

진안사과 팔아주기 운동을 통해 판매되는 홍로사과 가격은 10kg 1상자에 18,000원이다. 또한 △농협하나로마트와 도매시장 납품 △전주 호성동 소재한 진안군 로컬푸드직매장 토요장터에서 사과 재배농가의 직판행사 △풀무원 등 전국 사과주스·즙 제조업체와 진안사과 납품협의 등 다적적으로 판로를 알아보고 있다.

이 외에도 향우회와 진안군민 대상으로 '진안사과 팔아주기' 홍보도 전개할 예정이다.

구입은 진안군 전략산업과(063-430-2959)로 신청하면 택배로 받아 볼 수 있다. /진안=우태만 기자

2020 풍경있는 농산촌가꾸기 공모

무주군 무풍 승지마을 선정

1억 9천 8백만 원 사업비 확보

주거환경 개선, 주민 삶의 질 향상 기대

무주군은 무풍면 승지마을이 전북도가 주관한 2020 풍경있는 농산촌가꾸기 공모에서 대상 마을로 선정됐다고 26일 밝혔다.

풍경있는 농산촌가꾸기 공모사업은 농산촌 주변의 경관조성과 마을의 유휴공간을 활용해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소득기반을 마련해 주민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는 취지에서 추진된 것으로, 무주군 무풍면 승지마을(87가구, 주민 210명)은 한국의 아름다운 마을을 조성해 고부가가치 농촌관광 사업의 자원으로 만들겠다는 계획을 밝혀 주목을 받았다.

무주군은 앞으로 1억 9천 8백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마을 공공 사업지에 주민과 관광객들이 쉴 수 있는 숲을 조성하는 한편, 무주-무풍 구간의 하천 길도 생태숲으로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관리는 마을에서 직접 맡는다.

무주군청 산림녹지과 이상일 산림조성 팀장은 "왕벚나무, 매화, 살구 등 5천여 주에 달하는 나무를 심어 아름답고 깨끗한 지역의 이미지를 지켜낼 것"이라며 "풍경이 있는 아름다운 마을로 입소문이 나면 마을에서 운영하고 있는 펜션, 체험, 레스토랑 등의 사업과도 시너지 효과를 내 주민소득 증대 역시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에는 안성면 두문마을이 풍경있는 농산촌가꾸기 사업 대상지로 선정 돼 낙화놀이 공연장 주변 단장(가로수와 꽃 식재 등)을 마쳤다. /무주=전문선 기자

무주국유림관리소,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재선발

내달 4일까지 모집

무주국유림관리소(소장 채진영)는 가을철 산불재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산불전문예방진화대 1차 19명을 조기 선발했으며, 지역별 결원에 대하여 36명을 재선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선발하는 산불전문예방진화대는 9월 25일부터 10월 4일까지 모집 공고를 통해 지역의 우수 인력을 대상으로 응시원서를 접수받아 서류전형, 체력검정, 면접을 통해 10월 10일까지 최종 선발하며, 10월 중순부터 2개월간 운영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모집계획 인원은 36명으로 무주국유림관리소 관내(무주군, 진안군, 장수군, 남원시, 임실군)에 거주하며 신청일로부터 만18세 이상 신체 건강한자로 거점별로 근무가 가능한 자로 선발할 계획이다.

응시자격은 공고일 현재 만 18세이상 무주국유림관리소 관내 거주자로 신청방법은 산림청 홈페이지(www.forest.go.kr)의 채용정보에서 확인 가능하며, 사업신청서, 개인정보동의서, 구직등록증 등 소정의 서류(모집공고문 확인)를 구비하여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무주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산불재난으로부터 신속 대응하여 산림을 지키고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산림에 관심이 많고 열정이 넘치는 지역주민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지역 메아리

무주군, 화재대피 훈련 실시

무주군은 지난 25일 무주읍 남대천휴먼시아아파트(303세대)에서 제412차 민방위의 날 화재대피 훈련을 실시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날 훈련은 원인 대형화재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고 건물 내 주민대피 등 화재에 대한 국민행동요령 숙지를 위해 마련된 것으로, 오후 2시부터 아파트 내부 소방시설 및 자체 소방대 운영상황 점검 후 실제 훈련이 진행됐다.

무주군청 안전재난과 이승하 안전민방위 팀장은 "최근 공동주택 화재사고가 빈번해지면서 주민들의 불안도 날로 커지고 있는 상황"라며 "예방이 가장 중요하지만 만일의 상황에 대비한 훈련이 결국, 인명과 재산 피해를 막을 수 있기 때문에 민 · 관 합동훈련을 기획해 진행하게 됐다"라고 말했다.

한편, 누전에 의한 정전과 화재발생을 가정한 이날 실제 훈련은 무주군과 남대천휴먼시아아파트 관리사무소, 무주경찰서 기동타격대, 무주119안전센터 합동으로 진행됐다.

/무주=전문선 기자

진안군, 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개최

진안군은 26일 군청 상황실에서 '보다 나은 진안군, 군민이 행복한 혁신'을 위한 2019년 진안군 혁신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경진대회는 그동안 추진해 온 혁신성과를 공유하고 공직 내 혁신 분위기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총 23개팀 80여명의 직원이 참여해 부서별 대표적인 혁신사례를 PPT자료를 통해 발표했다.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위해 진안군 미래비전위원회 위원 5명을 심사위원으로 위촉하여 전북 및 중앙부처 혁신사례 경진대회 출전팀을 선정할 수 있도록 했다.

최성용 진안군수 권한대행은 "이번 경진대회를 통해 창의적인 혁신사례들이 많이 발굴되어 보다 나은 진안군이 되고, 정부 평가에서도 우수한 실적을 거두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해부터 혁신 평가를 도입해 자율혁신, 포용적 행정, 참여와 협력, 신뢰받는 정부, 혁신확산 및 국민체감의 5개 분야를 중심으로 지방정부의 혁신을 통한 국민 행복지수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진안=우태만 기자